

시론



탁인석
문화칼럼니스트

소주는 그야말로 한국인의 국민술이다. 한 국사람이 세계에서 술을 잘 마시기로는 1등 수준이 아닐까 싶다. 오래된 통계가 됐지만 2014년 시장조사에 의하면 일주일 평균 음주량이 13.7잔이어서 44개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 잘 마신다는 러시아는 6.3잔으로 2등인데 한국인이 2배 이상 더 마신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마시는 술은 소주로, 증류주 시장의 97%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음주량이 OECD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 특정 시점 조사에서 음주량이 높게 나타났지만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양뿐만 아니라 권주 방식, 회식 빈도, 폭탄주 같은 음주문화 등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인은 술은 매우 좋아했고, 그만큼 음주문화가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고대로부터 곡주를 빚어 조상에 바치고 춤과 노래와 함께 즐겼다는 기록이 많이 있다. 농사철에는 반드시 술을 빚어 근로를 도왔고, 모든 행사에도 술이 동반됐다. 요컨대 관혼상제 유교문화권 행사에서 술은 필수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기고



이서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가끔 SNS를 보다 보면 여러 보이는 학생들이 올리는 게시물을 보게 된다. 그 게시물의 댓글을 살펴보면, 비난이나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글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실제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자 중 일부는 그 이유로 ‘재미’를 꼽는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폭력이며, 범죄다.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독자투고

빗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빗길을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비가 내리는 날 운전은 가시거리가 평소 대비 줄어들면서 시야 확보가 어렵게 되고 이에 따른 방어운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내린 비로 인해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타이어의 마찰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가 평소 대비 길게 늘어나는 수막현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우천시 제동거리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속 50km로 주행하

연일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보내는 많은 피서객 중 누군가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과 무심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성애 호의를 보이며 합석 등을 요구하고 술과 약물 등으로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지러 수도 있어서 피서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낯선 사람이 권한 술이나 음료수, 음식은 거절해야 한다. 또한 심야에 이어폰을 꽂고 홀로 배회하

전라도에서 ‘보해’를 마셔야 하는 이유

술을 즐기는 사람은 술의 장점을 수없이 피력한다. 또한 안주가 좋은 회식에 술이 없이 음료만 마신다면 그건 너무 공허하다. 필자도 젊은 시절 한때 미션스쿨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좋은 음식에 단제가 즐긴다 해도 콜라에 먹으니 식사 끝나고 술 마시는 몇 사람이 별도로 소주집으로 향해 비용을 감수하며 기어코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전라도는 왜 이렇까. 오래전부터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생고기로 유명한 식당에 들렀다. 광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 유난히 생고기를 즐기는 도시이고 반드시 거기에는 소주가 곁들여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식당에는 손님이 만원이었지만, 테이블에 놓인 소주병은 전라도 향토술은 하나도 없었다. 아, 전후사방 적들에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느낌이었다. 의지할 곳 없이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는 허탈한 현상이었다. 나만 ‘보해’를 마셔야 하는가. 전라도는 정치적으로 특정정당에 80%-90% 지지를 보내면서 향토술은 10% 소비에도 미달이라고 한다. 이 지역 기업을 키워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 살아 보자는 건가. 무슨 행사라도 할 경우 보해주류에 스폰을 요청하지만 타지역 술은 언급생심이다. 문제는 소주맛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나는 평소에도 차이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AI에게 물었다. 초록병 회석식 소주는 차이를 느끼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회석식 소주는 베트남 등 동일한 주정공장에서 공급받는데 거의 순수한 에탄올 알코올 성분이라서 주정 자체에서는 맛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물에서 차이가 나

는가? 정답은 천만의 말씀이다. 소주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정제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역지하수나 특정물의 맛이 그대로 소주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심지어 같은 브랜드의 소주도 공장마다 맛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제조사마다 감미료의 종류나 비율은 다르게 하면서 미묘한 맛의 차이를 내려고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구분이 안된다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눈을 가지고 맛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AI에게 물어봤다. 이른바 블라인드 테스트다. 대답은 맛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답이다. 소주는 맛의 균일성이 중요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거부감이 없이 즐길 수 있는 중립적이고 깔끔한 맛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입견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소주에도 영혼을 담아 마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데도 전라도에서 마저 10% 이하 시장 점유율이라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베트남 어느 식당에 가도 한국 소주가 인기가 있고 일반화돼 기쁘게 그 지 없었지만 ‘보해’ 상표는 단 한 병도 없었다. 보해직원에게 물어보니 해외진출 자금력이 안돼 시도하기 어렵다는 답이다.

우리가 한 톨은 기업이 한 발도 해외로 못나가고 허우적대고 있는 격이다. 정치적 표심은 묻지마 90%대이면서도 향토기업 애용은 형편없으니 우리의 이같은 일을 두고 야누스적 이중얼굴이라 해야 할까. 한국인의 국민술 소주를 즐기면서 답답함을 넘어 턱수염이나 매만지는 허탈한 저녁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온라인 속의 아이들, ‘사이버불링’서 과연 안전한가?

‘사이버폭력 백신’이라는 앱을 통해 약 6년간 사이버폭력을 체험한 한 기자는 해당 기사에 ‘출구 없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가 겪은 가상의 사이버폭력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점점 어린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25.8%로, 중학생(18.1%)과 고등학생(14.7%)보다 높았다. 또한 2023년 경북교육청의 조사에서도 초등학교의 피해율은 6.5%로, 중학생(1.1%)과 고등학생(0.4%)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사이버폭력의 피해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요즘은 따돌림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정서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이 사이버불링

을 당하면 심각한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 국회는 늘어나는 사이버폭력 문제에 맞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하며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진짜 폭력’으로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의 피해자일 때 “너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말 대신, 아이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은 단순한 말의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에게는 상처가 되고 가해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어른들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온라인 속의 아이들은 진짜로 안전해질 수 있다.

비오는 날 감속은 선택 아닌 필수

다 제동을 했을 경우,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 대비 최대 1.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이어가 마모한계선까지 마모된 타이어의 경우 새 타이어에 비해 제동거리가 3.22% 증가 한다. 또한 장마철과 비오는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고 치사율 또한 평소 화창한 날의 약 1.4배 높다고 한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의 빗길 교통사고는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비오는 날은 운전자에게 핸들을 잡기에 곤혹스런 날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정 안전속도 준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폭우가 내릴 경우 제한속도의 20%-50%까지 감속해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이 젖은 곳을 지날 때 발생하기 쉬운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의 마모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넣고 운행하는 것이 운행에 알맞는 것이다.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운행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변수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장해 운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김덕형·장성경찰서 경무계장>

여름 휴가철 피서지 성범죄 대처법

는 것은 삼가고 길을 걷다 김새가 수상한 사람이 따라오면 상황에 따라 주위 도움을 요청하자. 호의적으로 동승을 권하는 차량은 타지 말아야 하고 피서지에서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무뎠다는 일이 없도록 하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성범죄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탈의실이나 공동화장실도 혹시나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숙박지에서의 문단속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김광중·해남경찰서 육천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광주시 행정 과정 인권침해 개선 헌신적 노력 시급

광주시가 행정 전반에 대한 인권감수성 실태 조사 결과, 다수의 침해 사례가 발견됐다. 학교 대상 인구조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으로 배제했으며, 수도요금 체납 시 단속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했다. 또 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공간을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차단했고,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자격 제한, 사생활 침해, 낙인 효과, 접근권 침해, 폭염 취약계층 배려 부족 등 5개 유형 4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분홍·초록·남색으로 금액별 색상을 달리해 취약계층 생활정도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강기정 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돼 죄송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해서는 안 될 행정이었다”며 머리

를 숙였다. 광주시는 즉각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전체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디자인과 색상이 동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실제로 광주는 행 모든 지점에서 사용 잔액을 확인한 뒤 교체해 주고 있다. 아울러 소비쿠폰 신청자에 대해서는 5개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새 카드로 발급하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광주시는 행정 수행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했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공유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권도시 광주를 더 단단히 다지는 일일 것이다.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책을 더 세심하게 마련해야 하겠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존중받는 행복 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 시장은 ‘인권기본법’ 제정도 건의했다. 행정 편의주의로 기인한 부당한 차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모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만드는 헌신적 노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이다.

도 넘은 도덕적 해이 시의회의 사과 늦은 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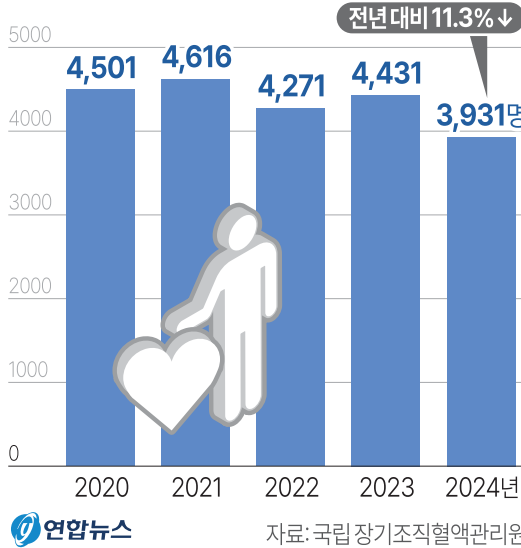
광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등을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공식 사죄했다. 신수정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밀실 쪽지 투표’ 의혹에 선 예결특위에 비윤리적 행위로 빈축을 산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 여기에 사무처 간부의 음주 일탈까지 겹치면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엄중한 시기에 동시다발로 악재가 터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이다. 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궁극에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할 수 있다. 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근무 시간 중 직원들과 음주로 물의를 빚은 사무처 해당자를 징계한다고 한들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앞서 성명서를 내 2개의 특별위원회는 민주주의 절차를 심대하게 위반한 중대 사안이자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써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인

시의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고며 만약 결과가 유승사마격이 될 경우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이 2026년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인 의회의 예결특위 위원장에 무소속, 부위원장에 국민의힘이 당선된 사실과 관련, 당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민 눈높이에 어긋나버린 광주시의회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란 약속을 믿어야 하는지 수상한 시절이다. 예결위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무처 공식 기강확립도 마찬가지다. 신 의장은 법령에 따라 감사 기구에 철저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공식실태 전반에 걸친 특별 점검도 예고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서둘러 대책을 내놔야 한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시의회의 사과가 때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그래픽 뉴스

장기 등 기증자수 추이

신장, 간장, 폐장, 심장, 폐, 체도, 소장, 말초혈(조혈모세포 이식 목적), 골수, 안구, 손, 팔, 발, 다리 등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이 전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최근 펴낸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은 3천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제외하고 보면 기증자 감소가 더 두드러졌다. 뇌사 기증은 483명에서 397명으로 17.8%, 사후 기증은 38명에서 10명으로 73.7% 각각 감소했다. 대부분 가족·친지 간에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자도 2천339명에서 1천980명으로 15.3% 줄었다. 기증자가 줄면서 장기 등 이식 건수도 5천54건으로 1년 전보다 15.0% 감소했다. 뇌사자 기증에 따른 이식(1천506건, -22.9%)과 사후 기증 이식(24건, -71.1%), 생존자 이식(1천980건, -15.3%)의 감소 폭이 컸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1천544건으로 소폭(1.7%) 감소했다. 아울러 미래에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죽게 되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조혈모세포는 별도)도 지난해 7만503명으로 1년 전보다 15.4% 줄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누적 인원(사망자·최소자 제외)은 1년 전보다 3.1% 늘어난 183만8천530명이었다. 장기 기증이 위축된 사이 이식 대기자는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장기 등 이식 대기자는 5만4천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부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설실부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